

“‘아이 같은 어른’ 역할 나이에 맞나 고민했죠”

영화 ‘가려진 시간’ 강동원, 감성 판타지 도전



멈춰진 시간 속에 갇혀 13살 소년에서 어느 날 갑자기 20대 후반이 돼 버린 청년. 현실에 없는 캐릭터이지만, 영화 ‘가려진 시간’ 속 강동원의 모습을 봤다면 고개를 끄덕일 법하다.

2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동원은 영화 속 ‘아이 같은 어른’ 이미지 그대로 인 듯 보였다.

180cm를 훌쩍 넘는 큰 키에 조막만 한 얼굴, 큰 눈에다 날카로운 콧날을 가진 강동원은 웃을 때는 10대 개구쟁이 소년 같으면서도, 진지하게 대답할 때는 13년 차 배우의 내공이 느껴졌다.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신부, ‘검사와전’에서는 전과 9범의 사기꾼 등 작품마다 연기 변신을 해온 강동원이지만, 이 영화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시나리오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시간이 멈춰

다는 설정이 처음에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져 약간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이 배역을 하기에 내 나이가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이런 배역도 이제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하게 됐죠.”

강동원은 올해 36살이지만, 나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인 배우다.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엄태화 감독도 처음부터 강동원을 섬의 1순위에 올렸다고 한다.

‘가려진 시간’은 한 섬에서 의문의 실종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어른이 되어 나타난 성민(강동원)과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는 소녀 수린(신은수), 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감성 판타지 영화다.

“이 작품은 요즘 같은 불신의 시대에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예요. 내가 본 것이 바르다고 누가 판단할 것인가, 또 내가 맞다고 생각했

던 것도 틀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화죠. 그런 면에서 영화가 10대의 어린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40대, 50대 등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동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사실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특히 이쪽 세계(연예계)는 엄청나게 살벌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가 무척 많죠. 어릴 때 많이 당해서 그런지 사람을 잘 안 믿게 됐죠. 그래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습니다.”

강동원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리고 나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서글퍼진다고 말했다.

강동원은 충무로에서 티켓파워를 지닌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가려진 시간’ 개봉일이 한 주 뒤로 연기되자 다른 영화들도 ‘강동원을 피하자’며 개봉일을 줄줄이 조정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을 정도다.

“제 티켓파워요? 글썽요. 이번 영화 자체가 평범하지 않으니까 경계하는 게 아닐까요?”

강동원은 2003년 MBC 드라마 ‘위풍당당 그녀’로 데뷔했지만, 최근 10년 넘게 브라운관에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는 “예전에는 드라마 제작 환경이 열악해서 잠도 못 자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게 싫어서 영화 쪽에만 집중했다”면서도 사전 제작 드라마 등 여건이 된다면 드라마에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C몽 악플 여전한데

노래는 차트 상위권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7)은 2일 발표한 정규 7집 ‘U.F.O.’의 타이틀곡 ‘널 너무 사랑해서’의 뮤직 비디오 말미에서 한강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 기사 많이 뒀더라. 근데 이젠 뭐 나 욕하는 사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옆에 있던 스태프의 답이 이어진다. “기분 탓입니다. 형님. 씩~ 다 욕니다. 씩~ 다.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앨범 공개와 함께 음원사이트 감상평과 기사 댓글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는 4년의 자숙 끝에 2014년 컴백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흥미로운 건 쏟아지는 악플과 음원의 인기가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비난 여론을 반영하면 음원 성적에 부진해야 하는데 여전한 음원 강자로서 견제함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컴백 당시 발표한 정규 6집은 음원차트 1위는 물론 수록곡들이 10위권을 채 켜웠고, 지난해 발표한 앨범들도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이번 7집 역시 소녀시대 태연, 트와이스 등 걸그룹의 강세 속에서도 멜론과 지니에서는 더블 타이틀곡이 모두 10위권에 진입했고, 엠넷닷컴에선 수록곡 7곡이 10위권을 장악하며 강세다.

한 유명 작곡가는 “4년 전 컴백 앨범은 ‘어떤 음악일까’란 호기심이 작용해 성공했을 수 있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건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집묵하는 다수의 힘으로 본다”며 “아울러 비난을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의 힘도 더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에 걸그룹’ 블랙핑크, 각종 차트 울킬

“오늘이 가장 긴장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안 계신 자리라 저희끼리 긴장 많이 했어요.”

2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블랙핑크 네 멤버(지수·로제·제니·리사)는 언론과의 인터뷰가 부담스러운 듯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제 데뷔 3개월이 된 블랙핑크는 같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선배 걸그룹 투애니원(2NE1)과 자주 비교되는 데 대해 “사실 투애니원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선 영광”이라고 했다.

제니는 “투애니원은 음악을 통해 YG만의 색깔을 보여준 분들”이라며 “투애니원과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고 보다는 최대한 투애니원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YG에서 투애니원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블랙핑크는 지난 8월8일 데뷔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을 발표했으며, 더블 타이틀 곡

‘휘파람’과 ‘봄바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휘파람’은 공개되자마자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각종 차트를 ‘울킬’하며 한 달 가까이 정상을 유지했다.

블랙핑크는 1일 두 번째 싱글 ‘스퀘어 두’(SQUARE TWO)를 공개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불장난’은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정상을 석권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6일부터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예능 등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창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55 2016 행복학교 박람회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말 겨루기 (재) 50 야생일기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옥중화 (재)	00 TV블로그 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5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 (재)	00 SBS 12 뉴스 5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품지락 55 2016 중동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재)
1	00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의 생존전략		30 양코르 MBC 다큐프라임	55 닥터 365
2	00 노래가 좋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영양군민들의날 기념 KBC축하쇼 55 닥터 365
3	00 숨터 (재) 05 특집다큐 400cc의 기적 (재) 55 튜튼생활제조 (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야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무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안녕 지두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트릭 & 트루 스페셜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4차 산업혁명 기획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황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한우 가꿔, 그 해법을 묻다〉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필레에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가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킹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문화콘서트 난장 LIVE 30 MBC 뉴스 24 55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기사 마이크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통일 미리보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요술상자	〈대서양의 절경을 품다, 북아일랜드〉
06:00 한국기행(재)	〈칼국수와 영양부추 무침〉	15:45 코코코다코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쿵	21:30 한국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오악사 솔바 우는 남도〉
07:30 뽀뽀뽀 뽀로로	12:10 장수의 비밀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7:45 꼬마버스 타요	12:40 역사재널e	17:30 뽀뽀뽀 뽀로로(재)	〈인문학 바스킹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08:00 당동당 유치원 1~3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45 꼬마버스 타요(재)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쥬	13:50 그림을 그려요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9:15 시계마을 타기톡!	13:55 출동! 슈퍼월스	19:30 EBS 뉴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기 힘든 이유는?〉
09:40 부모	14:55 모피와 친구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위대한 연마〉	15:05 두기탐험대	20:40 다큐오늘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일(음 10월 4일 己丑)

子

48년생 걸로만 평생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60년생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72년생 뒤도 돌아 보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급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33, 47

丑

49년생 통사다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한다. 61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73년생 청산 되지 않은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85년생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4, 45

寅

50년생 현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62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74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나 수용하는 것이 옳다. 86년생 정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53, 03

卯

51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는 경쟁이 따를 것이다. 63년생 부지런한 이가 선점하게 되는 법이니 진력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한다. 75년생 줄기찬 노력이 성공을 앞당길 것이다. 87년생 이만까지 살펴 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4, 39

辰

40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자. 52년생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뻐하리라. 64년생 잡자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76년생 견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88년생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42, 43

巳

41년생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정황이다. 53년생 조심성이 지나치다면 위축되고야 말 것이다. 65년생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7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89년생 기쁨에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이다. 행운의 숫자 : 27, 79

午

42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술선수범함이 생산적이다. 54년생 참으로 신중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천 냥 빚도 말한 마디로 갚을 수 있다. 78년생 태산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중동하는 성숙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1, 99

未

43년생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55년생 극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성숙이냐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67년생 김성과 홍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79년생 중함을 감안해야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70, 69

申

44년생 정황을 인식하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56년생 현상 감각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니 실무에 능해야 한다. 68년생 항해하는 선박의 풍향이 수시로 변하는 아치이니라. 80년생 지연되어 왔던 일의 물꼬가 트이리라. 행운의 숫자 : 50, 57

酉

45년생 전례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다. 57년생 성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시세이다. 69년생 투망한 것이 좋으니 번거롭더라도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81년생 중차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6, 86

戌

46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58년생 지난 날의 노고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겠다. 70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82년생 기대치와 현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1, 63

亥

47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니라. 59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71년생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83년생 전황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7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